

새해 첫날 전세계 테러·전쟁·총격·사고로 '얼룩'...피해 속출

美 뉴올리언스 트럭 돌진 10명 사망·35명 부상...테러 '무게' 프랑스서 방화로 차량 1천대 불타...가자지구 지속 폭격 공포

새해 첫날 전 세계가 전쟁과 테러, 총격 사건, 화재 사고 등으로 얼룩지며 사상자가 속출했다.

1일 오전 3시15분(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변화가에서 신년 맞이 행을 위해 모인 인파 속으로 갑자기 픽업트럭 한 대가 돌진했다.

이 사건으로 최소 10명이 숨지고 최소 35명이 다쳤다. 범인은 텍사스 출신의 42세 미 퇴역 군인으로,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망했다.

범인의 차량에서는 폭발물과 함께 IS(이슬람국가-IS)를 미국이 가리키는 명칭) 깃발이 발견됐다.

연방수사국(FBI) 등 수사당국은 이 사건이 테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테러 조직 연계 등 공범 여부를 수사 중이다.

또 이날 오전 8시40분(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에서 불이 나서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화재가 난 장소는 라스베이거스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입구 발레 주차 구역이었으며, 구체적인 화재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 목격자는 갑자기 호텔 입구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말했다.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가족이 운영하는 트럼프 조직과 미국 사업가 필 러핀이 소유하고 있다.

이날 0시 무렵에는 하와이 호놀룰루 한 주택가에서 폭격으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이 폭발하면서 최소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릭 블란지아르디 호놀룰루 시장은 "이번 사고는 불법 폭격의 위험성을 일깨워준다"며 "이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대응 자원을 소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신년 맞이 행사 중 전국에서 방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새해 첫날 새벽 미국 중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중심가에서 차량 돌진으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멍취선 픽업트럭 주변에서 경찰이 사고수습을 하고 있는 모습. /AFP=연합뉴스

차량 1천 대가 불에 타 폭동을 방불케 했다.

당국은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420

명을 체포해 310명을 구금했다.

브루노 리테로 내무부 장관은 "이런 폭력은 비겁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조

래한 잔혹함의 산물"이라며 "이들은 개인 주차장에서 차량을 보호할 여유가 없는 프랑스인들의 재산을 공격한다"

고 비판했다.

덴마크에서는 새해 폭죽 사고로 20대 남성이 사망하기도 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폭죽이 이 남성의 머리에서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덴마크에서는 새해 불꽃놀이 행사로 전국에서 20여명이 다쳤다.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북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체티네의 한 마을에 위치한 바 등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0명이 사망했다.

아코 마르티노비치라는 이름의 45세 용의자는 바에서 다툼이 벌어지자 집에서 총을 가져와 뒤 1차로 바에서 총을 쏘며 몇 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어 다른 장소로 옮겨 바 주인의 자녀들과 한 여성을 살해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는 새해 첫날에도 공습이 이어졌다. 이날 가자지구 중부와 북부의 일부 레지 난민촌과 자발리아에 집중된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지구에서는 최소 12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졌다. /연합뉴스

거리에 쓰러진 견주, 반려견 충성심에 사망?

행인들, 견주 도와주려했으나 맹견 핏발이 공격해 조치 못해

아르헨티나에서 맹견인 핏발과 산책을 하던 견주가 거리에서 쓰러졌는데, 당시 반려견이 견주를 도와주려던 시민을 공격해 적절한 구조를 할 수 없어 결국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1일(현지시간) 현지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주에서 반려견 핏발과 산책을 하던 46세 남성이 갑자기 거리에서 쓰러져 심각한 경련을 일으켰다.

당시 거리를 지나가던 32세 남성이 견주를 도와주러 다가가 옆에 있던 반려견 핏발이 심하게 달려들어 손을 물었고, 다른 행인들도 도와주려 했으나, 핏발은 견주를 보호하려 하듯 근처에 다가오지 못하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이에 시민들은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이, 구급차와 경찰 출동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견주는 사망한 상태였고, 핏발은 구급대원들까지 공격했으며, 결국 경찰이 공포탄 3발을 쏘며 핏발을 겨우 제압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핏발이 견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타인을 공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미 아르헨티나에서는 핏발 견종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발생하자, 이런 맹견을 키워도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2024년도에만 핏발 개물림 사건으로 3명이 사망했다.

지난 10월 부에노스아이레스주에서 견주가 자신이 키우던 핏발에 참혹하게 물려 죽은 사건이 발생했고, 앞서 4

월에는 산책 중 이웃이 키우는 두 마리의 핏발의 공격으로 전직 경찰이었던 64세 남성이 사망했다.

3월에는 잔디를 깎던 중 이웃의 핏발 5마리에 물린 77세 여성이 긴 입원 생활 끝에 결국 사망했다.

사망 사건 외에도 병원 입원을 해야 하는 개물림 사건도 다수 발생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특별한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22년 코리엔테스에서 핏발이 10세 소녀를 물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해당 견주는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최종 선고받고 현재 복역하고 있다.

핏발 개물림 사망사고가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핏발은 아르헨티나에서 인기 있는 견종이다.

정부는 사육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아마존 화재 17년만에 '최대'

지난해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발생한 화재가 17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는 위성 관측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총 14만328건의 화재가 감지됐다고 발표했다. 전년보다 42%

산불이 늘어난데는 오랜 가뭄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구(C3S)는 심각한 가뭄으로 작년 남미 지역에서 산불 관련 문제가 악화했다고 전했다. 과학자들은 계속되는 산림 파괴는 아마존이 흡수하는 탄소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방출하게 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는 기후 변화를 가속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연합뉴스

500kg 우주쓰레기 케냐 마을에 추락

케냐 남부의 한 마을에 500kg에 가까운 우주쓰레기가 떨어졌다.

케냐 우주국(KSA)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마쿠에니 카운티 무쿠우 마을에 지름 약 24m, 무게 499kg의 금속 고리 모양 물체가 떨어졌다.

KSA는 이 물체가 로켓 발사체에서 분리된 고리로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연소하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 떨어지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SA는 떨어진 파편을 회수해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다만 추락한 물체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주 쓰레기 추락사고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스페이스X의 드래건 캡슐 일부가 호주 남부의 한 양 농장에 떨어졌다.

지난해 2월에는 무게 23t 정도인 지구관측위성 ERS-2가 수명을 다하고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유럽우주국(EU SA)이 바짝 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어 3월에는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한 주택에 우주쓰레기로 보이는 물건이 추락해 집주인이 항공우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월에도 중국이 발사한 로켓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중국 남서부 마을에 떨어져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제품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전국 택배 무료배송!

장인의 기술

오래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자가격 ₩ 1,180,000

헤드	단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강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리트 완전해결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인 타구감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단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량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